

홋카이도의 낙농지대에서 보는 대규모 농업의 한계

오카이 켄(岡井 健)
편집실

필자가 사는 別海町은, 북해도의 최 동부에 있는 根室平野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전쟁 전에는 감자, 귀리 등을 생산하였지만, 차가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것은 목초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행정의 지원도 있어 낙농이 정착하게 되었다.

根室平野는 전쟁 전엔 주로 동북지방에서 개척 입식자들이 들어왔고, 전후에는 만주 개척자들의 귀국인들이 들어왔다. 가장 많은 때에는 이 지역에 4,000호가 넘는 농민이 영농을 하고 있었다. 점재된 집락은 신사를 지어 제사를 지냈으며 소, 중학교의 학예회나 운동회 등의 행사는 학생이 없는 농가도 참가하고, 소방단이나 지역 활동을 공동으로 하였다. 인척관계도 모두가 깊어 관혼상제를 같이 하고, 농작업도 공동으로 실시, 우수한 농가가 지도나 조언을 하는, 농협이나 행정과는 다른 강한 집락 독자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것은 신규 개척자로서 불안이나 경제적인 불안정을 도와주면서 살았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이 지역에 국영 대형 낙농 개발이 들어와 낙농의 대형화와 고필유화(高泌乳化)가 진행되었다. 동시에 수입곡물의 대량급여가 시작되었다. 당시까지 根室平野는, 목초주체(牧草主体)의 낙농으로 한두당 1정보의 규모였다. 호당 평균 약 40정보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40두 정도의 낙농이 주체였다. 1두당 1정보라는 사고방식이 일반적이었던 것은 목초의 존재를 기반으로 한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다.

대형화된 낙농은 초지의 존재가 그다지 없다. 사료는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동시에 根室平野의 낙농이 외부자본에 의존하는 영농형태로 이행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곡물다급(穀物多給)의 경영은 필유량은 높이는 한편, 젖소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준다. 전에는 없었던 병이 출현한다. 결과적으로 젖소의 내용연수가 극단적으로 짧아져 3산(三産)이 한도가 되었다.

대형화의 또 다른 문제는 고액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거대한 우사에는 고액의 농기구가 들어서 있으며, 그리고 우사에서는 젊은 후계자의 목소리가 들리게 되었다.

우사나 목초지는 어릴 때부터 낙농가로서의 체험을 하는 장소가 되었었다. 그런데 기계로 이루어지는 대형 낙농경영은 어린이들이 용이하게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못한다. 매년 변하는 사

양형태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의미가 없어졌다. 젖소들도 목초지에 나와 태양아래에서 자유롭게 풀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 분뇨 오염 등에 의한 환경악화도 현저히 늘었다. 根室平野에서 생산된 우유의 90%이상은 이러한 대형화 농가에서 생산된 것이다. 낙농전업지대로 불리던 당시 根室낙농의 모습과는 달라졌던 것이다.

대형화가 진행되는 한편, 이것에 견딜 수 없게 된 낙농가의 탈락이나 이농도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서서히, 그리고 나중에는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이농한 농가의 토지는 지역에 남은 대형화를 지향하는 농가가 매입하게 되었다. 낙농가가 감소하여도 확대지향의 강한 농가가 토지 등을 매입하여 생산량에서는 이농 농가 분을 보충하고 있었다. 현재, 농업 가구 수는 이미 1,200으로 줄었다. 가장 많을 때보다 약 4분의 1정도로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관내의 출하 유량은 78만 톤으로 이 십 수 년간 변하지 않았다. 국내생산량의 10%를 넘는 양을 자랑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가들이 이농지(離農地)를 매입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 생산량도 떨어지고 있다. 대형화가 한계에 이르렀지만, 낙농가 자신도 의문을 갖기 시작하였다. 대형화하지 않았던 농가가 수익이 더 많다. 혹은 변하지 않는 실태가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소규모농가는 1두당 1정보의 원칙하에 적은 소들은 건강하게 사육하여 병도 적고 투자도 적어 구입사료도 고용자도 거의 없다. 소들도 고령 우에서 장년우, 젊은 우로 밸런스를 이룰 수 있다. 경영 자체도 안정되고 건전하다는 것이 일반농가에도 알려지게 되었다. 무엇보다 소규모농가는 자신들의 시간을 많이 만들 수 있다. 한편, 대형농가는 노동시간이 길고, 질적으로 높은 노동이 요구된다. 이러한 차이를 대형농가 자신이 느끼게 된 것이다. 생산량은 유지된다고 하여도 낙농가가 감소하고 지역의 관혼상제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다. 학교는 각지에서 통폐합이 진행되고 작았던 집락은 더욱 작아져 소멸되어 간다. 이와 같은 지역이 적지 않다.

아베정권이 추진 중인 아베노믹스의 농업정책은 공격적인 농업이라는 간판 속에서 대형화 일변도이다. 크게 한다면 농업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맹신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지역이 경험한 대형화는 생산량 대신에 지역의 황폐와 환경의 악화, 젖소의 건강악화, 그리고 세계의 식료사정에 많은 부하를 걸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TPP(환태평양경제자유협정)는 농산물의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무관세 시스템이다. 결코 세계 농산물의 건전화, 기아나 빈곤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그 격차를 확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지금 많은 후계자들에게 TPP후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당 지역의 공립 고등학교 낙농과의 정원이 미달되고 금년에는 반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에 이와 같은 根室平野지방이라는 매우 한정된 지역에서의 사례지만, 농업형태의 추이와 현황에서 볼 때 대형화와 수입곡물의 다급이 세계적인 식량사정과 환경문제, 농업생산의 장래를 밝게 한

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금년은 FAO(국제 식량농업기구)가 결정한 “국제가족농해”이다. FAO가 가족농업 또는 소규모농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많이 있지만, 필자는 다음 3가지로 요약된다고 생각한다.

1.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에는 가족농업이라는 형태가 적절한 방법이다. 가족농업은 기능적이고 재해나 경쟁 등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2. 생산중시의 농업형태는 안전에 의문이 있는 농산물이 세계로 퍼지지만, 전통적인 농법을 중시하는 가족농업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이러한 일은 없다.
3. 결과적으로 환경에 좋고, 지역경제와 지역의 연결을 강하게 한다. 이러한 것은 어업도 임업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정부나 농업협동조합,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로 되어있는 농업연구기관이나 지도조직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가족농업, 소규모농업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생산량만을 추구하는 생산형태에서 탈피하는 것이 진실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㉞

평강자 주_ 본 원고는 일본 현대농업 2014년 8월호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한 것임

전국농업기술사업회 GS보너스 카드 사용 독려

우리협회와 GS칼텍스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보급한 농기협 노블리스카드(GS 보너스카드) 사용 독려하오니 협회와 연합회의 재정안정을 위하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사용을 바랍니다.

❖ **사용방법** : GS칼텍스에서 주유 또는 충전 후 평소 결제하는 대로 하면서 위의 보너스카드를 제시하여 적립요청

GS 보너스카드 혜택 및 활용

- ① 사용자에게 리터당 10원 할인 + 5원 적립
- ② 본회에 리터당 15원 적립 → 이중 10원은 지역조직 활성화 재원으로 지원됨

노블리스 카드 사용법

- ① 개인별 ARS(1544-5151)나 인터넷에서 간단히 등록(카드 앞면에 부착된 태그 참조)
- ② 등록자별 월600리터, 1일 3회 한도로 사용 가능
- ③ 사용기간 : 2015년 03월 31일까지(* 추후 실적에 따라 연장가능)
- ④ 셀프주유소에서는 카운터에서 선결제 및 할인을 받은 후에 주유하시기 바랍니다.